

‘뉴지방정부플랜’ 입안 김효석 새정추 공동위원장 인터뷰

진보-보수 벗어나 ‘삶의 정치’ 실현

정치권 최고의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효석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공동위원장이 정책단체에 임명돼 ‘안철수 신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정강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됐다.



▲새정추 공동위원장 및 정책단체 ▲16~18대 국회의원 ▲민주정책연구원 회장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원내대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회장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제11회 행정고시 합격

를 없애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처를 독립시키기로 했다.

-새정추에서는 지역불균형, 특히 호남 소외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역차별, 호남소외가 심각하다. 호남 정신은 소외와 차별을 넘어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다. 인생의 성공이 개인의 노력보다 고향이나 연줄이 좌우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영구적인 패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호남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내려고 한다.

-7당 6당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돈공천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내(발언) 의도는 낡은 관행을 깨고 가자는 것인데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며 말꼬리를 잡고 시비하고 있다. 정치권이 정말 떳떳하게 부인할 수 있느냐. 이번 선거부터는 벗어나야 한다.

-창당은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되는가.

▲새정추가 출범한 이래 창당 준비 작업을 착실히 해 왔다. 2월 중순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3월까지 창당을 추진할 것이다. 인제영입도 창당일정이 구체화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는 어느 정도 내는가.

▲가능하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후보를 다 낼 것이며 수도권·호남·영남·충청 등 각 지역에서 교두보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고 있다. 물론 광역의원 후보도 전 지역에서 내겠다.

-지방선거 공천 방법은.

▲창당이 되면 공천심사위가 구성될 것이고 거기에서 논의할 것이다.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은 몇 년째 현지에서 뛰고 있는데 비해 나는 선거목적으로 지방에 내려가 본 일이 없다. 지금은 창당 준비작업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단체장 귀책사유 재·보선편

당소속 후보 못내게 할 계획

기초장 정당공천 폐지 관철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 낼 것

도록 하고, 주민투표 대상 제한을 해제해 재정이나 인사, 공공시설 설치 등 주요사안을 주민이 통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부패 방지를 위해 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비용을 국고 보조금에서 차감하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지방재정 손실 방지책을 제정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나 세수 손실을 야기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받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주민 안전 사각지대

안측, 내달 중순까지 창준위 결성

실무단장 김성식·정책단장 김효석... 신당 명칭 국민공모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달 중순까지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또 창당실무준비단장에 김성식 새정추 공동위원장, 정책단체장은 김효석 공동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따라 새정추는 정당법에 따라 내달 중순까지는 200명 이상의 중앙당 발기인을 구성하고, 정당의 명칭(가칭)과 창당준비위원장 등을 결정해야 한다.

새정추가 신당 명칭을 국민공모로 결정할

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일부에서는 ‘국민’이나 ‘새정치’ 등의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창당준비위원장은 안 의원이 단독으로 맡는 방안,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정추는 오는 3월까지 신당 창당을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창당 준비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과 윤여준 새정추 의장, 김성식 위원장은 26일 부산에서 ‘새정치의 길, 부산 시민에게 묻다’ 행사를 열어 신당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안측은 이 자리에서 ‘수평·개방형 정당’을 자신들이 지향할 모델로 제시했다. 중앙당-시·도당간에 수평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의 당원 참여를 극대화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열린 정당’을 만들어 정당 구조와 체질이 기존 정당의 수직적·동원형 체제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시민간담회에서 부산이 자신의 고향임을 누차 강조하는 한편, 부산이 낡은 정치 구조를 깨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영남과 호남이란 망국적 지역 분열을 끝내고 싶다”면서 “제 고향 부산이 그 교두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파리서 日 위안부 해결 서명운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위안부 문제 해결 모임인 희망나비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 부근 사이오공 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선 “안이 직접 합류 제안... 고민중”

민주당서도 러브콜 받아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고민하고 있다.

박 의원은 26일 “안 의원을 최근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안 의원이 ‘새정치를 하는데,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며 “이에 응할지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만난 시기는 지난 21일 안 의원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3월 창당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현재 안 의원 측으로 같이 가자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옮겨간 사람들 중에서 빨리 합류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

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새정치를 실현하고 광주와 호남이 제 갈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새정추에 합류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인제 영입의 첫 사례가 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정균환 최고위원이 최근 박 의원을 직접 만나는 등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최고위원은 “오래전 잡았던 약속도, 우연히 최고위원에 임명된 후 만남이 성사된 것”이라며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고, 복당 등 정치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광주지역 의원들도 박 의원과 자주 접촉하며 복당 권유를 해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선거 조기 과열

선거법 위반 벌써 1000건

6·4 지방선거가 4개월 넘게 남아있음에도 선거법 위반 건수가 벌써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일까지 선거법 위반 조처 현황은 103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유형으로는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이 6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인쇄물 142건 ▲불법 시설물 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의 불법행위도 31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중 57건에 대해서 고발, 20건에 대해 수사의를, 953건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hinhan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ing a 1-story house, a 4-story apartment, and a commercial build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hinhan Real Estate and Daehsin Real Estate.